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주간 - 광주 경영계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광주은행

◆ 노사 상호협력 지역 상생 대출상품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에 따르면 육아휴직 장려 △출산 축하 지원 △난임 치료비 지원 △자녀 보육비·학자금 지원 △사내 어린이집 등 임직원 출산 장려·육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법정 육아휴직 외에도 자녀 1인당 18개월의 추가 휴직을 지원하고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독려하며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고병일 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일임형 ISA 수익률 전 은행권 1위 달성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누적 평균 수익률이 전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MP는 62.62%, 중위험 MP는 41.02%, 저위험 MP는 21.75%를 기록했다.

이는 성장산업 자산의 조기 편입과 강화된 리스크 관리 전략 덕분에 성과가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광주은행은 분석했다.

일임형 ISA는 전문가의 운용과 분산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세계 혜택과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병일 은행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당행의 선진국 투자 전략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좋은 성과를 이뤄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익률 관리를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농성역 재단장...소통 공간 조성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백화점 인근 지하철역인 농성역을 시민 소통 공간으로 재단장했다고 밝혔다.

낙후된 시설의 농성역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마련하자는 취지로 광주시·광주교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광주신세계는 백화점 운영사의 노하우를 활용해 리모델링 디자인을 구상하고 시공 비용을 부담했다. 특히

공연 무대에 대형 발광 다이오드(LED) 화면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광주시 이슈와 생활 정보 등을 간편하게 접할 수 있게 했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가 전문성을 발휘해 탄생한 소통 공간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메종키츠네·연남동 맛집 뒀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지역에서 보기 어려웠던 신규 브랜드를 연이어 입점시키고 인기 있는 F&B 브랜드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새로운 쇼핑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호남권 최초로 본관 4층에 프랑스 패션 브랜드 '메종키츠네(Maison Kitsuné)'를 오픈했다. '메종키츠네'는 프랑스어로 '집'을 의미하

는 '메종(maison)'과 일본어로 '여우'를 뜻하는 '키츠네(kitsune)'의 합성어로, 2008년 파리에서 시작된 브랜드다. 서울 가로수길에서 큰 인기를 끌며 MZ세대 사이에서 사랑받고 있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항상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역의 쇼핑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호고속

◆ 임직원·가족 '의료·장례' 지원한다...'복지' 강화



금호고속(총괄사장 이계영)이 세종요양병원·금호장례식장·화순장례식장·송정장례식장과 함께 18일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호고속은 임직원들에게 해당기관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외래 및 입원 진료 비용 할인 △장례

식장 빈소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과 가족들이 의료와 장례 서비스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영 총괄사장은“이번 MOU체결은 임직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 전북현대모터스와 공식 파트너십 연장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지난 2월 16일 전북현대모터스의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조인식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2025시즌 동안 전북현대모터스 홈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보드, 골대 옆 고정 보드, 홈페이지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

를 노출한다. 특히 전북현대모터스 선수들은 유니폼 상의 뒷면 하단에 금호타이어의 로고가 적용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경기장 내 고객 초청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통하여 전북현대모터스 팬들과 소통하고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국내 최고의 명문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와 파트너십을 연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북현대모터스와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브랜드 프리미엄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 '2025 英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냉장고 부문 1위



삼성전자는 2024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8.3%의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네오(Neo) QLED, OLED, 초대형, 라이프스타일 TV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을 펼쳤다. 또 ▲삼성 TV 플러스 ▲삼성 아트 스토어 등의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해 소비자 경험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현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2006년부터 이어진 1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의 뒤에는 항상 고객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AI TV와 같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AI 기반 스크린 기술 ‘비전 AI(Vision AI)’를 공개했다. 비전 AI는 TV의 역할을 확장해 사용자의 니즈와 취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스크린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한전KDN

◆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위한 효과성 평가 시행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향후 개선안 수립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KDN이 임직원 및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는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라 맞춤형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오는 21일 까지 진행한다.

박상형 사장은 "공정거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며 "이번 설문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고히 해 신뢰받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전KDN

◆ 배전자동화 등 안정적 전력공급 배전 기술력 선배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최근 서울 COEX에서 열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에서 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FRTU) 등의 솔루션을 통한 배전계통 기술력을 선보였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에는 한전KDN을 비롯 한국전력, LS ELECTRIC, LG 에너지솔루션 등 280여개 국내외 주요 업체들이 참가 ELECS, KOREA 2025(구 한국전기산업대전) 전시회

와 동시 개최됐다. 한전KDN은 이번 전시회에 ▲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FRTU) ▲재생에너지 감시 제어장치 ▲배전자동화 통신중계장치(AWB/PLC) 등 3종의 솔루션 배전계통 기술력을 소개했다. 박상형 사장은 "최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너지 데이터의 효과적 분석과 활용 등 미래 예측과 개선으로 국민의 안정적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 공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

◆ 행안부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서 '우수 등급'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평가'에서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데이터분석 협업체계 구축 △데이터분석·과제 발굴 △데이터분석 톨 도입 등 데이터 기반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과학적 행정으로 업무 품질 수준을 올린 노력을 인정받아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홍연 사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업무 수행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 및 기반 구축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로 '세계 No. 1 전력 설비 정비산업 그랜드 플랫폼 기업'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전MCS

◆ 'CEO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업무계획 보고' 시행



한전MCS(사장 정성진)는 CEO와 임직원 간 소통 경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강릉, 제물포, 군산, 목포, 부산을 순회하며 전력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사와 도서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업무계획 현장 보고회'를 시행한다.

정성진 사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 사항 파악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임직원의 만족도 및 사기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 보고회에서는 ▲기상악화에 따른 입도 결항시 임시 사무소 마련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노력 ▲무재해 사업소 선정 등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정성진 사장은 "입도항 인근 전력서비스 사업소를 통한 사무공간 확보, 유류탱크 등 주요시설 CCTV 설치 추진, 무재해 사업소 현황 파악 후 격려 등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반그룹

◆ 제15대 회장으로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추대



호반그룹(김상열 회장)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제15대 회장에 추대됐다.

KLPGA는 17일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제15대 회장 선임 관련 건 등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5대 회장 선임과 관련해 김정태 현 회장은 제13대 회장을 역임했던 김 회장을 추천했고,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김 회장을 추대했다.

KLPGA는 "김 회장은 한국 골프 산업 발전과 KLPGA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여러 차례 고사 끝에 다시 한번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상열 회장은 1989년 호반건설을 창업한 다음 호반그룹으로 성장시킨 기업인으로, 현재 호반 장학재단 이사장, 서울신문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제1675회 금요조찬포럼>

호남 정신과 유쾌한반란

(김동연 경기도지사)

1675회 금요조찬포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초청하여 「호남 정신과 유쾌한반란」을 주제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 및 호남정신을 공유하며 강연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호남정신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대표해 왔다” 고 강조 하며 이제는 경제의 시간, 비전 2030 등을 소개 했습니다.

그는 “8년전 대통령 탄핵 직후 초대 경제 부총리” 와 “2008년 경제위기 청와대 경제금융 비서관을 지내면서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 면서 역사는 더디지만 그러나 진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7공화국에서는 경제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과 지방에 핵심권한을 이행해 지방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제2의 노무현의 기적,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쾌한 반란을 광주에서부터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저도 적극적으로 헌신하겠다“며 강연을 마무리 했습니다.



1. 경제동향

◆ 전국경총회장협의회,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 발표 (2.6)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한국경총)와 15개 지방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는 2월 6일(목)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 동 호소문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 노동계·시민사회 등 각계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 경제계 역시 어려운 경제, 정치 상황 속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 주요 내용〉

- ① (정치권에 “기업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 입법 매진” 당부) 글로벌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정치 불안 등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활력을 잃지 않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
 - 또한,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올 것인 만큼, 기업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어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해 달라고 호소
 -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중한 규제 입법을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 일부 기업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
- ② (정부에 “경기 회복 및 내수 활성화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과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모두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재정 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與·野·政이 협의하여 효율적인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
- ③ (노동계·시민사회에 “사회 안정 동참 노력” 호소)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노동계·시민사회가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성숙한 의식을 보여달라고 호소.

- ④ (경제계, “투자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준수 노력” 다짐) 경제계는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정치불안 같은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ESG 경영 같은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면서, 기업의 시대적 의무와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KDI, 「2025년 경제전망(수정)」 발표 (2.11)

- (경제전망) KDI에 따르면, 2025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2.0%)보다 낮은 1.6%* 증가할 전망

* 2024년 11월 전망치(2.0%) 대비 0.4%p 하향 조정

- (소비) 2025년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의 영향이 반영되는 가운데 정국 불안의 영향도 점차 완화되면서 2024년(1.1%)보다 높은 1.6%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투자) 2025년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와 반도체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4년(1.8%)과 유사한 2.0%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2025년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되며 2024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전망
- (수출) 2025년 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2024년(6.9%)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1.8%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물량 기준)

※ 상품수지 내 수출 금액 기준으로 2025년 수출은 전년대비 0.5% 증가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되면서 2024년(2.3%)보다 낮은 1.6%의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2024년(2.2%)보다 낮은 1.5%로 예상

-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겠으나 내수 회복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전년

(990억달러)에 이어 900억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가 예상됨.

- 2025년 취업자 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도 완만한 수준에 그침에 따라 2024년(16만명)보다 낮은 10만명 내외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2025년 실업률은 2024년(2.8%)보다 소폭 상승한 2.9%로 전망

- **(전망의 위험요인)** 국제 통상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 시기,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경우, 대내외 투자수요가 축소되고 우리 수출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
 - 대내적으로는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

◆ 국제통화기금(IMF),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7)

- IMF가 2월 7일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2025년에는 견조한 수출과 민간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제통화기금은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표. 금번 연례협의의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24.11월 7~20일까지 기재부, 한은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 협의를 기반으로 작성. '25.1월 발표한 IMF 전망치(2.0%)와 동일

- 2025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2024년 4.2%(GDP대비)에서 2025년 3.6%가 될 것으로 전망

- IMF에 따르면, 2025년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

- 또한, IMF는 정책 대응 방향으로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지속과 함께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목표 수준 이하의 물가 하락 발생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

◆ 기획재정부, 「피치(Fitch),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보도」 발표 (2.6)

-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 개월간 지속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 다만,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언급
- 피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美 신정부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당초 2.0% 전망). 다만, 2026년부터는 소비 및 설비·건설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전망
-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에도 높은 수준(GDP 대비 4.5%)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GDP 대비 23%에 달하는 순대외자산이 한국의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

◆ 한국은행, 「2024년 12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2.6)

〈 12월 국제수지 〉

- 2024년 12월 경상수지는 123.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3년 12월(89.3억 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34.4억 달러 확대
 - ※ 경상수지는 2023년 5월(20.9억달러 흑자)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한국은행) : 67.3('24.8)→ 112.9(9)→ 94.0(10)→ 100.5(11)→ 123.7(12)
 - 상품수지는 104.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86.6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
 - ※ 상품수지는 2023년 4월(6.6억달러 흑자) 이후 21개월 연속 흑자 기록
 - 서비스수지는 21.1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29.8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축소
 - ※ 서비스수지는 2022년 5월(2.8억달러 적자) 이후 32개월 연속 적자 기록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47.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3년 12월(38.2억달러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
 - 이전소득수지는 7.1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2023년 12월(5.6억달러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

- 2024년 12월 금융계정은 93.8억달러 순자산 증가 기록

〈 2024년 연간 국제수지 〉

- 2024년 경상수지는 990.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3년(328.2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662.2억달러 확대
 - * 지난 2015년(1,051.2억달러 흑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의 '24.11월 전망치(900억달러 흑자)를 상회
 - 상품수지는 2024년 1,001.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3년(376.6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624.7억달러 확대
 - 서비스수지는 2024년 237.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2023년(268.2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31.2억달러 축소

- 본원소득수지는 2024년 266.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3년(262.5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3.7억달러 확대
- 이전소득수지는 2024년 40.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2023년(42.6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축소

2. 노사동향

◆ 계속고용, 근로시간제 개편 등 주요 노동법제 개선을 둘러싼 여야정 이견 심화

- 정부는 2025년 주요 고용노동정책으로 ‘일자리 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를 설정하고, 계속고용 등 제도개선 사항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야당은 국회 중심의 제도개선 논의 추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 10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① 정년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제안하고, ②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서는 ‘주4.5일제를 거친 주4일제’를 방향으로 제시
 - 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 13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국회 내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 그러나 정부·여당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법제 개편 논의’ 기조를 갖고 있어 여야간 이견 대립 심화
 - 정부·여당은 경사노위에서의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 입장 표명
-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관도 2. 11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해 청년 고용을 저해하는 일률적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 한편, 여당은 주요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촉구(2. 11, 교섭단체 대표연설)

◆ 노동계 정치투쟁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

- 여민주노총은 2. 11「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025년 사업계획 및 투쟁 일정을 논의한 가운데 7월 중순 총파업 예고
 - 민주노총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① 정권퇴진, ② 노동기본권 쟁취, ③ 조기대선 대응 대선방침 수립 등으로 결정
 -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쟁취를 내세우며 7월 중순 전국단위 총파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하반기 산업현장 노사관계 혼란 증가 우려
 - ※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주요 요구 : ① 노조법 2·3조 개정, ②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③ 초기 업교섭 제도화, ④ 특고·플랫폼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등
 - 민주노총은 3월 「정권퇴진 전국노동자대회」, 5월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6월 「최저임금인상 투쟁」 등을 통해 7월 총파업 투쟁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
- 민주노총은 금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 회계공시 거부’ 안건을 의결시켜 대정부 투쟁 분위기를 높인다는 계획이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되어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정부 회계공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민주노총 내 계파간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는 금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되지 않음
 - 민주노총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국회내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

◆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의제 설정을 둘러싼 논의 난항 전망

-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운영 중인 가운데 노사5단체는 2. 7 제5차 실무협의에서 논의 의제 및 운영 방향 발표 마무리
 - ※ 노사 5단체 : (경영계)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 경총은 4차산업 혁명,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한 인재양성 및 인적기반 구축을 의제로 제시한데 이어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및 하도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 등도 의제로 제시
 - 노동계는 특고·플랫폼종사자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초기 업교섭 활성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을 의제로 제시
- 한편, 국회의장실은 2. 21 실무협약에서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3월 내 의제 합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나, 노사간 이견이 큰 만큼 의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노동계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갈등 증가 우려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예상하는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 임단협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 한국노총은 2. 12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7.3% 인상(정액 314,919원 인상)을 확정
- ※ 한국노총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 산출방식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0%)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 + 실질임금 보전분(2.0%) + 연대임금 조성분(1.5%)
- 민주노총도 조만간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 전망
-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올해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11,210원 인상, 지부교섭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기본급 141,300원 정액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전언
- 한편, 주요 전자, 철강사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 요구로 노사관계 갈등 지속

- 삼성전자 노사간 교섭이 난항을 거듭 중인 가운데 회사는 지난 2. 11 교섭에서 ▲임금 4.5% 인상, ▲복지포인트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임금 6.4%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EVA → 영업이익) 등을 요구하며 사측안 거부
- 현대제철 노조는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 ▲현대자동차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가운데 2. 11 상경집회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2025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광주경총 주요 회원서비스 (특전) 안내

- ✓ 각종 노동경제 교육 및 연수 무료 참가
- 중대재해 및 노동관계법 현안 등
- ✓ 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및 청·장년층 인재 알선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 일자리센터
- ✓ 기업 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 참석
-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자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 인사노무관리 자료제공 (온·오프라인)
- 최신 노동경제 정보 제공, 도서 발간 배포
- ✓ 기업 입장 대변 및 경영계 창구 역할 활용
- 노동경제 관련 법·제도 국회 의정 활동 및 대정부 건의
- ✓ 자문위원 무료상담 활용
- 인사, 노무, 회계, 경영, 법무, 무역 분야
- ✓ 노동사건 해결 지원 및 노조파업대책 지원
-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관련 사건 지원
-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협력·고용창출 유공자 포상 및 추천
- ✓ 회원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 지원
- ✓ 기타 회원기업 경영애로 해결 지원활동



2025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062)
1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	광주 지역 뿌리산업 해당기업 및 재직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채용기업 : 월 60만원씩(최대 6개월) • 근속지원금 : 1인 최대 240만원 • 공동이용시설 개선 : 기업당 최대 900만원 (자부담금 10% 이상) • 주거비(월세) : 월 30만원씩(최대 6개월) • 건강검진비 : 1인 최대 30만원(연 1회) 	716-3504
2	청년성장 직장 적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소재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관리자(직책, 근속기간 제한없음) - 신입직원(최근 3년 내외 채용, 청년층: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및 신입직원 일체 교육지원 - 관리자: 리더십, 소통, 갈등관리 등 - 신입직원: 직장예절, 팀협업, 문서작성 등 * 회원사 맞춤형 교육 설계 및 자사교육 가능 	654-3427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 애로청년 채용 기업 및 빈일자리 업종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 근로자 : 18, 24개월 재직 시 최대 480만 원 	716-3424
4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자금지원사업안내

1.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2,700억 원
지원기간	2025.1 ~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지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3억원 이내 - PRE·명품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 안전보건 우수기업 : 5억원 이내
지원내용	은행 약정금리에 이차보전 2% ~4%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 추가지원

2. 수출진흥자금

지원규모	30억 원
지원기간	2025. 2 ~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24. 1 ~ 12.) - 2024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전시박람회 참가 등 市 수출사업 참여 업체
지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3억원 이내 - PRE·명품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 안전보건 우수기업 : 10% 추가지원
지원내용	분기별 변동금리(1분기 2.12%)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은 1.62%